

2012년 시멘트산업 결산

김의철 과장 / 한국시멘트협회 기획팀



2012년 국내 경제 및 건설 동향

2012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여파로 대내외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내수 경기 부진과 함께 수출 역시 부진한 양상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민간소비의 위축이 지속되고 건설 및 설비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건설경기는 지속적인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세계경제의 성장 약화에 따라 수출 중심의 수요가 비교적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수입마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국내 경제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다.

시멘트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는 SOC예산과 건설투자가 소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의 회복 지연과 함께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 2012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우리 경제는 유로존 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 민간소비 회복 지연 등 대내외 여건 개선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과 내수 모두 2012년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은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내수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전략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멘트 수급동향

내 수

시멘트의 국내 수요는 국내외 경기변화 속에서도 건설경기 요인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아울러 기후나 날씨 요인에도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평년의 연강수량이 1,400mm 정도로 북태평양 서부에서 연중 28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는데 이중 2~3개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발생한 태풍은 24개로 이 가운데 제7호(카눈), 제14호(덴빈), 제15호(볼라벤), 제16호(산바)가 국내에 영향을 미쳐 다른 해에 비해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해로 기록된다.

여름철 많은 비로 인한 지반 약화에 따른 일부 업체의 광산이 붕괴되는 사고로 석회석 채광이 중단되고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멘트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장치산업의 한계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강수량은 11월까지 1,605mm(서울 기준)로 동기간의 평년값(30년간의 평균강수량)인 1,451mm와 비교할 경우 154mm(10.6%)가 늘어나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시멘트 내수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44,100천톤으로 2007년 50,801천톤을 출하한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건설경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건설투자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며 슬래그미분말, 플라이애쉬와 같은 시멘트 대체재의 수요가 크게 확대된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내수의 분기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1/4분기 2.2% ↑, 2/4분기 8.8% ↑, 3/4분기 5.1% ↓, 4/4분기 9.9% ↓로 2011년 하반기부터 살아난 건설지표 반등의 여파로 상반기까지는 시멘트 수요가 늘어났으나 하반기 들어 건설지표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연간 전체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1 참조)

〈표 1〉 2012년 시멘트 수급실적(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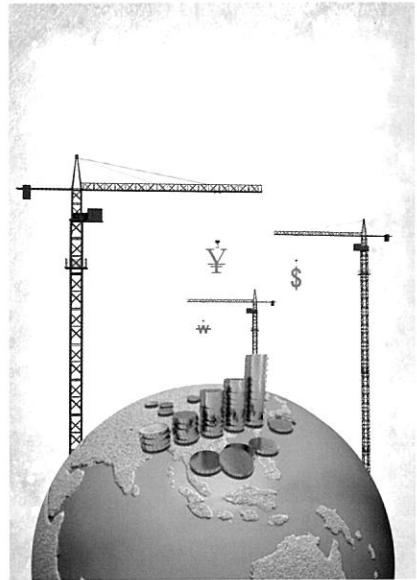
(단위 : 천톤, %)

구분	수요			공급			재고
	내수	수출	계	생산	수입	계	
1/4 분기	8,992 (102.2)	511	9,503	9,571 (101.9)	183	9,754	1,468
2/4 분기	13,589 (108.8)	1,106	14,695	14,359 (103.6)	187	14,546	1,330
상반기	22,581 (106.1)	1,617	24,198	23,930 (102.9)	370	24,300	
3/4 분기	10,016 (94.9)	892	10,908	10,952 (97.1)	165	11,117	1,549
4/4 분기	11,503 (90.1)	771	12,274	12,218 (89.0)	185	12,403	1,500
하반기	21,519 (92.3)	1,663	23,182	23,170 (92.7)	350	23,520	
합계	44,100 (98.9)	3,280	47,380	47,100 (97.6)	720	47,820	

주 : 10, 11월은 속보치, 12월은 추정, 플링커 수출 5,700천톤 별도, ()는 전년동기대비

계절별 출하실적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가장자리에 들어 무더운 날씨를 보이며,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하다. 이러한 기후 변화 속에 연중 건설공사는 봄과 가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즉 여름은 장마, 겨울은 혹한으로 비수기가 되는 등 계절과 일기의 상태에 따라 시멘트의 소비도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출하의 계절지수를 살펴보면, 연간 평균치를 100으로 볼 때 1월과 2월은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공사 감소로 계절지수가 약 60%선에 그쳐 비수기임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으며, 2/4분기와 4/4분기는 계절지수가 100을 상회하며 연중 성수기에 해당하는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다.(표 2 참조)

〈표 2〉 최근 시멘트 내수의 계절지수 및 구성비

(단위 : %)

구분	1월	2월	3월	1/4분기	4월	5월	6월	2/4분기	상반기
계절지수	62.8	64.1	107.1	78.1	117.9	119.4	112.0	116.4	97.2
구성비	5.2	5.3	8.9	19.5	9.8	10.0	9.3	29.1	48.6
구분	7월	8월	9월	3/4분기	10월	11월	12월	4/4분기	하반기
계절지수	91.3	93.6	97.8	94.2	116.2	118.5	99.1	111.3	102.8
구성비	7.6	7.8	8.2	23.6	9.7	9.8	8.3	27.8	51.4

주 : 분석 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평균

한편 분기별 출하구성비는 1/4분기 19.5%, 2/4분기 29.1%, 3/4분기 23.6%, 4/4분기 27.8%로 2/4분기가 가장 높았고, 상하반기로 나눌 때는 하반기(51.4%)가 상반기(48.6%)에 비해 출하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생 산

시멘트는 원재료인 석회석을 광산에서 채광하여 분쇄 및 소성과정을 거쳐 중간제품인 클링커로 만든 다음 석고 등의 첨가제를 넣고 미분쇄하여 최종적으로 시멘트라는 완제품으로 생산한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클링커 생산은 수출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국내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보다 1.3% 감소한 44,700천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9,755천톤(4.9% ↑), 2/4분기 12,989천톤(3.5% ↑), 3/4분기 11,172천톤 (2.4%

↑), 4/4분기 10,784천톤(13.0% ↓)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완제품인 시멘트 생산은 1/4분기 9,571천톤(1.9% ↑), 2/4분기 14,359천톤(3.6% ↑), 3/4분기 10,952천톤(2.9% ↓), 4/4분기 12,218천톤(11.0% ↓)으로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2.4% 감소한 47,100천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가동률은 72%로 전년의 73%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며 수출을 제외할 경우 실제 가동률은 60% 수준도 못 미쳐 생산능력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수출입

2012년 11월까지의 수출은 8,294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수요 감소에 따라 업체들이 수출에 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경제 위기로 인한 세계 시멘트 시장의 위축과 일부 수출업체의 생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수출 대상국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다변화 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큰 변화를 찾기 어려웠으나, 방글라데시에 대한 클링커 수출이 감소한 것이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우리 업체들이 수출한 국가는 총 27개국으로 작년과 동일한 가운데 대륙별로 수출실적을 분석해보면 아메리카와 유럽이 증가한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 참조)

〈표 3〉 주요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 천톤)

구분	방글라데시	미국	나이지리아	앙골라	페루	케냐	일본	칠레	러시아	기타
2011년	2,244	1,428	1,916	634	390	37	566	832	229	1,689
2012년 1~11월	1,423	1,291	715	913	536	132	605	935	231	1,513

주 : 클링커 수출 포함

2012년 12월 예상 수출량(600천톤)을 포함하면 2012년에는 8,980천톤을 수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시멘트는 전년대비 26.8% 감소한 3,280천톤을, 클링커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5,700천톤을 수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품종별 수출 비중을 보면 전체 수출 중 클링커 비중이 63.5%로 시멘트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 참조)

〈표 4〉 연도별 품종별 수출현황

(단위 : 천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추정)
클링커	3,494	2,085	4,762	5,481	5,700
시멘트	3,006	2,487	2,762	4,484	3,280
합계	6,500	4,572	7,524	9,965	8,980



2012년에는 국제 시멘트 거래가격이 소폭 인상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내수가격과는 격차가 있어 수출 채산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각사별 수출실적(클링커 수출 포함)을 살펴보면 쌍용 4,400천톤, 동양 3,320천톤, 라파즈한라 980천톤, 성신 270천톤, 한일 10천톤으로 동양, 성신을 제외한 업체들이 전년보다 수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양이 아프리카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성신이 교환수출 이외에도 시멘트 직접 수출을 늘린데 반해 쌍용은 주요 수출국

인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페루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라파즈한라의 경우 2012년 초 방글라데시에 대한 수출 부진에 이어 하반기 광산 붕괴사고로 인한 생산 차질로 수출이 전년보다 100만톤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수요 부진에 따라 최근 감소세를 지속해온 시멘트 수입의 경우 2012년에는 5.4%가 증가한 720천톤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산에 대한 수입이 2010년 이후 재개됨에 따라 약 10천톤을 수입하였으나 아직도 수입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표 5 참조)

〈표 5〉 연도별·국가별 시멘트 수입실적

(단위 : 천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추정)
중국	522	120	74	-	10
일본	1,463	711	698	683	710
합계	1,985	831	772	683	720

재 고

시멘트는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생산능력의 변동이 크지 않으며 생산지와 소비지가 원거리 에 위치하여 수송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수경성을 지니고 있어 보관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요는 계절과 건설경기에 따른 변동 폭이 심하여 적절한 재고를 생산공장과 유통기지에 나누어 보관해야 하는 제품이다.

시멘트 재고는 2012년 중 47,820천톤(수입 720천톤 예상)의 공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는 47,380천톤(수출 3,280천톤 포함)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연말재고는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6 참조)

〈표 6〉 2012년 월별 클링커 및 시멘트 재고 추이

(단위 : 천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추정)
클링커	1,630	1,441	1,632	1,498	1,272	1,233	1,396	1,997	2,035	1,795	1,542	1,500
시멘트	1,653	1,459	1,468	1,612	1,318	1,330	1,618	1,891	1,549	1,533	1,511	1,500

주 : 10월, 11월은 속보치, 12월은 추정

수 송

2012년 10월까지의 시멘트 수송실적은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한 42,267천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송수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선박운송이 18,727천톤을 기록하여 우위를 점한 가운데 철도운송은 11,899천톤, 도로운송은 11,641천톤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할 경우 철도운송이 172천톤(1.5%) 증가한 가운데 도로운송도 346천톤(3.1%) 늘어났다. 하지만 선박운송의 경우 649천톤(3.3%) 줄어들었는데 이는 2012년에 수출이 741천톤 감소한데(9.0%)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 7〉 연도별·수단별 수송실적

(단위: 천톤,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1~10월	
철도운송	17,161 (31.6)	15,807 (31.0)	14,596 (28.9)	14,487 (27.9)	11,899 (28.2)	101.5
육상운송	15,699 (29.0)	14,616 (28.6)	14,240 (28.1)	13,809 (26.6)	11,641 (27.5)	103.1
해상운송	21,366 (39.4)	20,587 (40.4)	21,766 (43.0)	23,596 (45.5)	18,727 (44.3)	96.7
합계	54,226	51,010	50,602	51,892	42,267	99.7

주: ()는 수송분담비, 수출포함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철도전환교통보조금 사업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전체 보조금액의 확대 없이 참여업체가 늘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각 기업의 혜택은 축소되었다.

철도수송의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을 추구하려는 정부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과감하고 현실적인 철도수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의 보완과 함께 철도수송 물류기지의 신규건설, 이전 등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잠잠하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2012.6.25~6.29)로 생산공장과 유통기지에서의 출하 어려움이 있었으나 운임 인상 타결로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 큰 피해 없이 마무리 되었으며, 철도노조도 3차례의 경고파업에 이어 11월 9일부터는 무기한 전면파업이 예정되었으나 다행히 극적인 노사협상 타결로 파국은 면할 수 있었다. ▲

